창사 67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치료 잘하는 병원
친절한 병원
목포 청연한방병원

제8947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34 SINCE 1991 kjdaily.com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음력 5월 22일)

‘국정기획委’ 출범…광주시·전남도, 국정과제 채택 촉각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밑그림

지역출신 정치인 9명 참여 역할 주목

市,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설치 총력전

道, 대응 체계 가동…건의 활동 돌입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광주시·전남도가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 채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도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갖고 향후 운영 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국정기획위원회 현판식과 위원 임명장 수여식도 열렸다. 위원장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한다. 주요 활동은 7개 분과위원회(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정기획위원회에는 광주·전남 출신 정치인 9명도 참여해 역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전남 출신은 부위원장을 맡은 김용범 정책실장(무안), 기획분과 분과장 박홍근 의원(고흥), 기획분과 위원 안도걸 의원(화순), 경제2분과 위원 위성곤 의원(장흥), 사회2분과 위원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완도), 정치행정분과 분과장 이해식 의원(보성), 정치행정분과 위원 박균택 의원(광주), 외교안보분과 위원 이용선(순천)·박선원(나주) 의원 등 9명이다. 대학교수나 시민사회단체 소속은 대부분 출신지를 밝히지 않았다.

분과별로 하루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해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 분야별 국정 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다. 1회에 한해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80일간 활동할 수 있다. 활동 종료 이후 경과를 백서로 정리해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날 강기정 시장 주재로 ‘대선공약 국정과제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전략을 점검했다.

특히 광주시는 대선공약의 국정과제화를 위해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운영키로 했다.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은 광주의 7대 지역공약을 포함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중앙부처 등과 실시간 정책 협의를 진행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시 7대 공약은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적극 추진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선언 ▲영산강·광주천 수변활력도시 조성사업 적극 추진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이다. ▶2면에 계속 /김진수·김재정·변은진 기자

무료 전세버스 투입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9일째 이어진 16일 오전 남구 방림동 버스정류장에서 투입된 전세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부터 순환01과 봉선37에 무료 전세버스를 투입했다. /김애리 기자

시내버스 파업 ‘갈등 조정’ 시의회-광주시 공방

박필순 “적극적 중재 노력을” 촉구

신수정 의장, 준공영제 재점검 요구

姜 “勞, 중재안 수용해야 파업 끝나”

광주 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 갈등 조정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입장 차를 드러냈다.

광주시의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주체인 광주시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임금 협상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필순 시의원은 16일 시의회 제332회 1차 정례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핵심 운영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강기정 시장을 향해 “시내버스 파업은 언제 끝나는지 시민들을 대신해 묻고 싶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의 수장이자 정치인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안 해결에 직접 나서는 모습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내버스가 2주째 발을 멈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에 피해는 더욱 막심하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파업 종결을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자는 요청에 ‘노조의 결단’만 강조한 시장 답변은 유감”이라며 “노사 임금 문제는 광주시 예산과 직결되기에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신수정 의장도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올해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지 19년째”라며 “그동안 민간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광주시의 재정 부담이 2007년 196억원에서 지난해 1천402억원으로 7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또 “승객 감소와 운송 원가 증가라는 구조적 모순 속에 요금은 10년째 제자리로 전국 최저 수준인 데다, 비효율적인 운영과 부실한 관리·감독 역시 문제”라며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에 맞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민 고통을 외면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광주 시내버스 파업 사태는 애초부터 노사 간 협상이 동결이냐, 8.5% 인상이느냐에 대한 간극이 컸다”며 “노조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안을 수용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 파업이 종결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노사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파업 종료 시점은 알 수 없다”며 “현행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책임은 광주시이지만 임금 문제는 노사 간 자율적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강 시장은 “광주시가 버스 파업의 제3자냐, 아니냐라는 표현은 단지 수사적 표현일 뿐”이라며 “파업 전부터 파업 과정, 현재까지도 광주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적극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3일 전남지노위가 시내버스 노사에 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변은진 기자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오늘 취임

별도 취임식 없이 업무 시작

전남도는 16일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고문이 17일 제14대 경제부지사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영광 출신인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지역 복지공동체 여민동락 대표, 더광주연구원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함께 일했던 ‘친명’ 인사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김영록 지사가 정치적 판단을 통해 결정한 인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도는 강 부지사의 폭넓은 인맥과 네트워크를 활용, 새 정부·국회 등과의 가교 역할을 통해 인공지능(AI), 에너지 고속도로,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도정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성공과 전남도의 동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전남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강 부지사는 17일 별도 취임식 없이 도청 각 부서를 들러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김재정 기자

Today

초등교사 ‘명퇴’ 2년 새 두배이상 늘어 7면
노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청년층 추월 12면
KIA, 중위권 싸움 ‘뒤집기’…4강 정조준 16면

CMYK